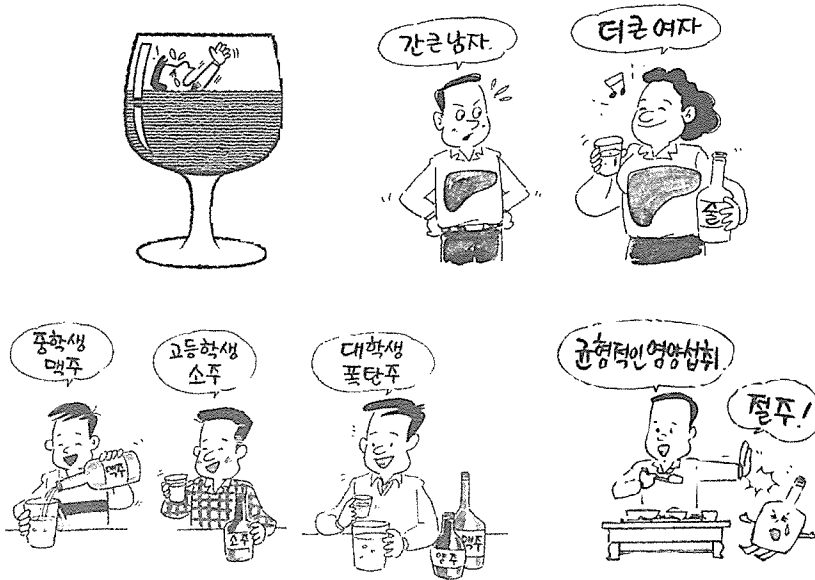


올바른 음주 자세는 건강한 대학 생활의 기초!



대학생이 되면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모임, MT, 체육대회 등등 거의 모든 행사 후에 접하게 되는 것이 알코올이다. 이러한 대학생의 음주 문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만 해도 서울대 봄철 대학 축제에서 발생한 서울대생 2명의 의사 사고와 모 대학의 MT에서 게임의 벌칙으로 술을 마시던 한 여학생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다. 대학생들의 음주는 사교 상 관계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음주로 인해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경제적으로 비용 손실을 가져오고 사고나 폭력에 개입되는 일, 건강 저하 등의 결과로 고생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98년 M대학에서는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여학생이 강제 폭탄주를 마신 후 사망했다. 또한 미국 P대학의 한 여학생이 친구들과 자신의 21번째 생일 파티를 하다가 폭음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 가을부터 미국 대학들이 펼친 금주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금주 건물 및 금주 파티 설정, 둘째 지역 술집들과 신사 협정 체결, 셋째 과음의 해악을 경고하는 광고물 설치, 넷째 음주 관련 교칙 위반 시 가족에게 통보하는 등 다양하다. 미국 대학들은 대학생의 폭음현상이 "대학에서는 폭음이 일반적"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C대학은 학생들에게 "학교에 적응하려고 술을 마실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기숙사와 강의실 등 학생들의 생활 공간에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자기 방에 스티커를 붙인 신입생들에게 50달러씩 나누어주는 이벤트를 벌인 바 있다. 지역 행정 기관